마음 심장의 지성소와 성소

(출37:1~29)

1.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2.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테를 만들었으며
3.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4.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5.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메게 하였으며
6.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7.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8.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9.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오늘 지성소와 성소 안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법궤와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읽었고 진설병 떡 상을 제작하는 얘기나 나오고 불을 켜는 등대와 향을 피우는 분향단을 제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막 안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본문 내용을 가지고 <마음 심장의 지성소와 성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 심장의 지성소와 성소'

70살이 되신 노인의 심장은 평생 몇 번을 뛰었을까요? 대략적으로 26억 번 박동을 한다고 합니다. 달리기를 많이 하는 분이었다면 훨씬 박동 수가 많을 것이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얌전하게만 사셨다면 26억 번보다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먹만 한 심장이 70세 노인의 피를 돌린 양이 1억 8천만 리터라고 합니다. 1리터짜리 우유를 1억 8천만 개를 늘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많은 양의 피를 돌린 것이지요. 이게 다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네 개로 이루어진 심장이 작동을 하면서 70년 동안 26억 번을 박동을 하는데 멈춘 적이 없이 1억 8천만 리터의 혈액을 순환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심장이 하루에 십만 번을 박동을 하는 횟수로 측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격의 심장인 마음은 몇 번을 뛰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결심하고 또 우두커니 있거나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움직임인데 이것을 심장의 박동처럼 쿵쿵쿵 뛰는 것으로 환산을 하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발동한 그 길이를 쭉 나열하면 1리터짜리 우유 1억8천만 개를 늘어놓는 것보다 부피가 못할까요? 엄청날 것입니다. 육체의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졌는데 인격의 심장인 마음은 하나의 심방과 심실로 하나의 지성소가 있고 하나의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널판으로 길이 13.8미터 너비 4.104미터 높이 4.5미터의 직사각형으로 만든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네 겹의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든 앙장(휘장)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성막이 비어있는 이유는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릇도 비어있게 만들어지는 것은 담기위해서이고, 비행기도 자동차도 비어있게 만드는데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도 성막처럼 비어있게 만드신 것은 담기 위해서인데 성소와 지성소는 어떤 역할로 구분이 되는 것일까요?
잠언 4: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대로 보자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는 근원이다’라는 말로 ‘생명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생명현상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인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만족대신에 불만이 나오고 기쁨대신에 슬픔과 걱정과 절망과 염려가 나오고 행복대신에 불행과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의 상태가 표현되는데 이게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이니 지키라고 하는데 지성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가 비어있다는 것은 담으려고 하는 것인데 생명을 담습니다. 생명은 나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지성소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른 말로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것이고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의 지정의(知情意)활동, 인간의 희로애락의 모든 것들이 마음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을 모셔 들여서 담아두는 곳이고, 성소는 인간의 지정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인데 ‘지’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추리하고 분석하고 ‘정’은 희로애락의 느낌이고 ‘의’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계획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마음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얼마 전에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만 명이 죽는 참사를 보는 것과 세월호 참사를 보는 것이 느낌의 강도가 달라요. 네팔에서 일어난 참사로 인해서 모두가 다 안됐다고 생각하지만 세월호 참사 때처럼 그렇게 절실한 느낌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그 참사 속에 가족을 잃은 당사자들 차원과 연관성이 없는 대한

민국 국민들과는 또 느낌이 달라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능력은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이게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느낌과 의지의 표현이 강해집니다.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과 멀어질수록 느낌도 약해져요. 의지의 활동도 미약해집니다. '생명이 이에서 난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해서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무엇 때문에 기쁘냐? 무엇 때문에 슬프냐? 무엇을 하려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고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지성소에 들어오는데 어떤 것이 될 수 있느냐?
막10: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지성소 안에 예수님을 모셔 들일 것인가?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넣을 것인가? 그 당시의 전토는 지금 우리의 모든 재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물질, 돈, 모든 게 다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과 같은 선상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과 나를 포함해서 첫 번째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 마음속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성소에는 사업을 집어넣고 사업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유리하겠다싶어서 예수 믿음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활동 속에 속하는 것이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잖아요. 돈을 지성소에 넣고 돈을 벌기에 유리한 조건 중에 종교를 하나 믿는 것도 괜찮겠다싶어서 불상에 절을 하고 40일 기도를 하면 부처님의 염력으로 우리 사업이 잘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안에 들여놓은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활동의 내용과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선민은 그 지성소에 무엇을 들여놓는 사람들이냐?
법궤인데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데 십계명 돌판은 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인격성인 하나님의 주체성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도 읽다보면 어떤 책은 버립니다. 한 책을 일곱 권을 샀었는데 목차를 살펴보고 던져버리고 했습니다. 제 책상의 책꽂이에 꽂는다는 자체가 너무나 불결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고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다 사상과 종교에 관한 책들인데 제가 광장동의 신학생으로 살 때 천호대교로 뛰어나가서 한강에 버린 적이 있습니다. 돈 주고 샀는데 도저히 책꽂이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은 사서 두고두

고 평생에 갖고 다니는 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속에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쓴 이의 정신, 소설이면 소설가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돌판이 법궤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글 속에 담겨있는 정신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형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시면서 말씀 안에 소설가의 글 속에 소설가의 스피릿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들어 있어서 돌판이 법궤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십계명 돌판을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분을 마음에 들여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정점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사건화 된 것이니 그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는 것이 선민들이라는 것이지요. 돈, 자식, 건강을 집어넣지 않고 오직 돌판에 쓰인 말씀 대신에 육신 되신 말씀을 지성소 안에 들여놓는데 바로 법궤입니다.

그리고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인 이유는 법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말씀의 돌판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인간의 더러운 죄를 속해주는 것이니 지성소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죄는 번제단에서 속해지는 것인데 법궤의 뚜껑으로 덮여 있고 왜 속죄소라고 말하는 것인가? 죄가 성립되는 포인트가 바로 지성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심장의 지성소에 내 자식을 들여놓으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모범시민이 십계명 중에 특별히 5계명부터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도 않고 살면서 마음속에 자식이 들어 있고 부모님이 들어있다면 죄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나라도 효를 중요한 사상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이 죄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김구 선생님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신 것이 나라사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인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는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죄가 뭔 줄 아니? 너희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죄다.'라고 하십니다.
지성소에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돈이고 사업이라면 마음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이 다 그것에 종속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대로 어긋나지 않게 행동을 했어도 손끝마다 발끝마다 입을 열고 말할 때마다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라를 집어넣고 행동하는 것이 애국자라고 표창장까지 주고 죽은 다음에 후손들에게 연금까지 주고 기림을 받더라도 마음 지성소에 나라를 집어넣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심지어 단순한 느낌까지도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집어넣으면 돈과 관련된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데 죄입니다. 마음에 자식을 집어넣은 사람이 자식 때문에 기뻐도 죄고 슬퍼도 죄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담은 것이 바뀌기 전에는 손끝마다 발끝마다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에 다른 것을 담고 있는 자들을 선민으로 모아 놓으시고 성막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성막제작에 관한 얘기를 반복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 떡 상은 마음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떡은 먹고 배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 무엇을 들여 놨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배부름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배부름이 만족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생명현상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만족이 있어야 하는데 만족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으로 이게 바로 진설병 떡 상으로 표현된 것이에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집어넣었다면 그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돈이 현실적으로 내게 주어져야 만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족을 위해서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삶은 단순해요.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을 들여놨느냐는 것입니다. 그 들여놓은 것이 현실적으로 주어지고 현실적으로 풍성해지고 현실적으로 잘될 수 있어서 만족하느냐? 불 만족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집어넣은 첫 번째 사랑의 대상과 연관돼서 다른 것은 없지요. 그래서 이 인류의 문제는 결국 굶주림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집어넣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돈 벌려고 뛰어다닙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을 집어넣으면 자식을 양육하는데 온 신경과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배불러집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 상황과 무관한 배부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 자식을 집어넣었는데 자식이 죽었다면 돈이 휴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이 세상의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맨날 하나님으로 배부르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될까요?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들어와 있는 상태로 일이 안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으로 배부름이 일어날 수 없지요. 그리고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 들였어도 그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것은 돈을 마음에 집어넣었어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으로 끝나면 됩니까? 모셔 들인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벌려면 돈과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이 길어요. 평생 동안 돈에 종사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 배부르려면 하나님을 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돼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으므로 이제 하나님만을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요만큼도 드리지 않아요. 1시간도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도 논리적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전제가 받아들여지면 그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비약입니다. 비약은 다 마찬가지에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비약이에요. 단순한 믿음이라는 얘깁니다. 십자가 복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도 비약이고 믿음입니다. 이건 비약이지만 일단 그 전제를 받아들이고 나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 전제에서 어긋나지 않는 논리적인 합리성이 신앙의 말씀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설득이 되고 하나님만으로 배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왜 배부르지 않지요? 배부르지 않는 것은 먹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버는 시간을 가져 본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는 시간을 비교하면 몇 시간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지를 보세요. 그러므로 배부름이 없습니다. 그건 도둑이에요. 그냥 전제만 받아들이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것은 도둑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배 부르려고 하느냐? 마음의 활동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진설병 떡 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등대의 얘기를 하십니다. 불을 밝힌다. 이 '밝힘'이라는 것이 삼상 14장을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에게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먹는 자들은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싸우다 보니 너무 배가 고파서 수풀에 있는 꿀을 발견하고 허기진 상태에서 지팡이 끝에 꿀을 찍어서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등대는 우리 마음에 밝음을 말하는데 판단의 밝음, 생각의 밝음, 소원의 밝음, 추리나 분석의 밝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동안의 좋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좋아할 이유가 없던 것을 좋은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굶주림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것이지요. 제가 형님들에게서 들은 얘긴데 특히 둘째 형이 기갑부대에서 굉장히 훈련이 심했답니다. 완전무장을 하고 행군을 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들고 목이 마르면 시골마을을 지나가는데 시골은 하수도가 지하에 있지 않고 오픈이 돼 있어요. 그 하수도 물을 그냥 마신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탈도 나지 않는 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굶주린 상태에서는 탈도 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하나님 맞춤형 사이즈의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집어넣고 돈을 벌어서 만족하겠다고 하고, 자식을 집어넣고 자식으로 만족하겠다고 하고, 결혼해서 배우자로 만족하겠다고 하고, 권력으로 만족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굶주리면 뵈는 게 없고 분별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집어서 먹겠다고 돈 집어넣고 자식 집어넣고 배우자 집어넣고 권력 집어넣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별하고 지성소가 비어있으니 굶주린 상태에서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증권회사에 입사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을 한 탁월한 엘리트가 있다면 그 사람

이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명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굶주려서 밝음이라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밝은 판단, 밝은 생각의 옳음이 없는 것입니다. 굶주리면 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 들여놓은 첫 번째 사랑을 우리는 누구나 다 24시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보고 싶어 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 집어넣고 돈, 돈, 돈, 하는 게 이게 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면 24시간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시장에 갈 때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 생각만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니 돈이라는 정체가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성공의 정체가 보이는데 이게 밝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좋아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만을 갈구하며 열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사건으로 다 충족이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동선을 따라 아버지께로 내 마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내 마음의 지성소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셔 들이는 것입니다. 계속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배부름이 옵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지면 세상만사가 보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총독과 왕 앞에서 밝음으로 눈을 떠서 보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지라도 나처럼 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밝음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와 마음의 성소가 제 자리를 잡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성막제작을 앞에 두고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에 지성소와 성소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오리지널 플랜대로만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